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유가상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중동지역 정치불안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, S&P500지수는 이로 인해 하락세를 나타냄.
 - 3월 2일 현재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가격은 102.23 달러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으며, 유가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18일 이후 무려 18.6%의 상승률을 나타냄.
 - 한 애널리스트는 갤런 당 3.75달러 수준의 유가가 1년간 지속될 경우 사회보장세 인하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, 유가가 갤런 당 5달러까지 상승하는 경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함.
 - 유가의 단기 급등세로 기업 수익성 및 소비자 구매력 악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S&P500지수는 2월 18일 12,391 포인트를 고점으로 3월 2일 현재 3.5% 하락함.
- 버냉키 연준의장은 유가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가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함.
 - 버냉키는 이번 유가상승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며,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도 현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.
 - 미국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인상가능성도 높지 않으며, 많은 기업들이 유휴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임.
 - 한편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종료예정인 2차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,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냄.

(AP 등, 3/1)